

다니엘서 - 번호 195

일요일 법령으로 가는 길: 트럼프의 역할과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전개

Jeff Pippenger

2024-04-25

40절의 숨겨진 역사에는 1989년의 끝의 때부터 2020년, 일곱째 대통령인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탈취한 때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의 계보가 담겨 있다. 2020년은 그 시점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숨겨진 역사의 시작을 표시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이 수립되는 때를 상징한다. 그 열 왕은 즉시 자기들의 일곱째 왕국을 여덟째 왕국에 넘기기로 합의하는데, 그 여덟째 왕국은 '일곱 중 하나', 곧 교황권이다. 그 숨겨진 역사는 일곱째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일곱째 왕국으로 끝난다.

역사는 그리스를 격동시키는 부유한 왕을 대표하는 크세르크세스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왕이 여덟 명 있었다고 밝힌다. 우리는 2절의 끝과 3절 사이에 있는 숨겨진 역사가 숫자 여덟로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를 나타냄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완전히 확립되며, 그 시점에 일곱째 왕국이, 이어 여덟째 왕국이 도래한다. 페르시아의 여덟 왕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끝나므로, 숫자 여덟은 일요일 법령에서 결론을 맺는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를 표시한다.

10절부터 15절은 마카비의 역사로 나타난 세 가지 이정표 가운데 세 번째가 짐승의 형상의 시험의 때였으며, 그 세 번째 이정표가 기원전 161년에 시작해 기원전 158년에 끝나는 기간이었다고 알려 준다. 그 기간은 기원전 167년의 첫 번째 이정표 다음에 이어졌는데, 그 이정표는 이름이 '항의하다'를 뜻하는 모데인이라는 도시에서의 마카비 반란의 시작을 지목한 것이었다. 그 모데인에서의 항의 이후 이어진 기원전 164년은 제2성전의 두 번째 봉헌을 지목했다. 기원전 164년은 1989년 레이건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을 지목하는데, 그는 일곱에 속한 자이다. 그의 2025년 1월 20일 취임은 기원전 164년으로 대표되었고, 재봉헌식은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두 번의 언급을 포함하는 사탄적 기적을 낳았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여덟 왕은 기원전 161년부터 158년까지 유대인과 로마의 동맹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2025년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이어지는 짐승의 형상 시험의 때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을 제공한다. 2절은 2020년의 도둑맞은 선거까지 나아가며, 그 지점에서 페르시아의 여덟 왕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 적용될 때까지 멈추는데, 그 적용은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다. 페르시아의 여덟 왕을 2절과 3절 사이의 역사에 대입하면, 바이든의 취임부터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까지 여전히 숨겨진 기간이 남아 있다.

그 숨겨진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드러나며, 그곳에서 무신론의 짐승이 2020년에 두 증인을 죽인다. 그런 다음 상징적인 사흘 반 후에 미가엘이 강림하여 두 증인을 부활시킨다. "부활한" 트럼프는 2022년 11월 15일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했고, 부활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2023년 7월 말에 십사만 사천을 부르기

시작했다.

다니엘서 11장 10절, 11절, 12절은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하며,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고, 이어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는 현재의 러시아 연합체의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13절부터 15절은 세 가지 예언의 줄기를 제시한다. 두로의 음녀가 은신처에서 나올 때 시작되는 교황권의 회복의 줄기는 14절로 예표되며, 그 역사적 성취는 기원전 200년으로, 이교 로마가 스스로를 높이지만 결국 넘어지는 '네 백성의 약탈자들'로서 예언적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이다.

세 구절에서는 배도한 공화주의의 예언적 계보가 안티오코스 3세의 역사로 대표되며, 그는 여덟째 대통령, 곧 일곱에 속한 자로서의 트럼프의 역할을 전형화한다. 그 구절들은 또한 마카비의 역사로 대표되는 배도한 개신교의 예언적 계보도 식별한다.

밀러파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시작하여 14만 4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끝나는 참된 개신교의 뿔의 예언적 계보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에도 겹쳐 적용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는 밀러파의 빌라델비아 운동과 14만 4천, 둘 모두의 상징이다. 예언을 봉함하시는 일과 예언을 개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가 그렇게 하실 때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10장에서, 화이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 아닌 분"이라고 말한 그 천사가 "사자가 포효할 때처럼 큰 소리로 외쳤고,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우레가 그들의 소리를 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일곱 우레"를 서기 100년경 예언적 역사 속에 두셨고, 곧바로 그것을 봉하셨다. 이는 "일곱 우레가 그들의 음성을 내었을 때" 요한이 기록하려 하였으나, 그가 하늘에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40절의 숨겨진 역사가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리고 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참된 개신교 뿔의 계보는 "일곱 우레"로 상징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2023년 7월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일곱 우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계시의 봉인을 열었다.

'일곱 우레'는 2020년 7월 18일, 14만 4천의 운동이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때로부터 곧 임할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일곱 우레의 선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목한다. 첫 실망 이후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뒤따르고, 이어서 일요일법이 따른다. 화이트 자매는 '일곱 우레'를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로 보든, 또는 미래의 사건들로 보든, 두 경우 모두 그것들이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사건'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서터 야영 집회는 여러 관련 세부 사항이 수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야영 집회에서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의 성취이기도 했다. 엑서터 야영 집회라는 그 '사건'은 '일곱 우레'의 성취였지만, 열 처녀의 비유는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녀들의 '경험'을 다룬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 신자들의 경험도 또한 예증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일곱 우레가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에 관한 병행 역사를 밝혀 주듯, 열 처녀의 비유도 두 가지 병행 역사를 밝혀 준다.

“나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던 열 처녀의 비유를 자주 상기하게 된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히 적용되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었고 또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일곱 우레의 상징은 병행하는 역사들의 '사건'을 나타내고, 열 처녀는 그 두 병행 역사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경험'을 나타낸다. 1856년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경험은 빌라델비아의 경험이었고, 14만 4천 운동의 경험은 2023년 7월 직후까지 라오디게아의 경험이었다. 두 역사 모두에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임할 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드러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누가 준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일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상태는 또한 라오디게아의 상태로도 언급된다.” Review and Herald, August 19, 1890.

2023년 7월 말에 강림한 대천사 미가엘의 손에 있는 메시지를 먹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머물 것이며, 작은 책을 취하여 먹는 자들은 빌라델비아의 상태로 옮겨갈 것이다.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밖에 계시며 들어오기를 구하시는 백성 또는 개인을 가리키고, 빌라델비아의 상태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일곱 우레는 2020년 7월 18일에 시작하여 일요일 법에서 끝나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에 배치된 참된 개신교 뿔의 선상에 있는 “사건들”을 식별한다.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동일한 기간에 십사만 사천에 속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의 '경험'을 드러낸다. 2020년 7월 18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십사만 사천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들'과 그 역사 속에서 두 부류가 겪는 '경험'에는, 그 두 개의 평행한 역사에서 과거에 맡겨졌고 지금도 맡겨져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함께 따른다. 그 사역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로 대표되며, 밀러주의자들의 사역은 첫째와 둘째 천사로, 십사만 사천의 사역은 셋째 천사로 대표된다.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받아 왔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경험해 왔다. 그 천사들은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온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하늘의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그 순서대로 이 세 기별을 선포한다. Life Sketches, 429.

2001년 9월 11일, 인침의 시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세 백성에게 주어진 그 일은, 인침의 시기의 끝에, 2023년 7월 미가엘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세 백성에게 주어졌다.

"요한은 이렇게 보았다.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밝아졌다.' 요한계시록 18:1.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음성이다." 1888년 자료, 926.

일곱 우레가 상징하는 "사건들"과 열 처녀가 상징하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세 천사의 사역은 서로 평행한 두 역사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들에게 예언의 계통 가운데 그들의 위치를 정해 주셨으며,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사역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것과 병행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의 경고를 선포한다. "이 일 후에," 요한은 말하였다,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조명 속에는 세 기별의 빛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 1888년 자료집, 804쪽.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는 배도한 개신교의 계통(마카베오), 배도한 공화주의(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두로의 창녀(네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의 예언적 사역이 식별된다. 그 바로 같은 역사 속에서, 십사만 사천의 참된 개신교 별의 예언적 계통은 그들의 사역,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세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식별한다. 참된 개신교 별의 계통은 일곱 우레로 표현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봉함된 것으로 지목된 유일한 예언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일곱 우레의 예언을 봉하신 분으로부터 이 책의 예언들을 봉인을 풀라는 명령이 내려온다.

인치는 기간의 시작에 있었던 일곱 우레의 봉함이 풀림으로 예표된,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기간의 끝에 있을 일곱 우레의 봉함이 풀림은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그 부분에 (줄 위에 줄) 적용되어야 하며, 그 부분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이다. 그 봉함 풀림이 일곱째 인의 열림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십사만 사천 위에 부으실 것이다. 오순절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과 맞물린다.

나는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되풀이될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때에는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불로 그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을 찬양함에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어눌한 혀가 풀리고,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담대히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인침의 때의 시작은 인침의 때의 끝을 보여 준다. 처음에는 늦은비가 분량대로 부어졌고, 마지막에는 한량없이 부어진다.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온 천사는 2023년 7월 말에 강림한 천사와 동일한 천사이다. 오순절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오순절의 완전한 성취는 14만 4천의 부활에서 마침을 맺는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 그 행위는 오순절 날에 내릴 풍성한 비에 앞선 몇 방울과도 같았다.” 예언의 영 3권, 243쪽.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셨는데, 그것은 "오순절의 풍성한 소나기"에 앞서 주어진 "몇 방울"이었다. 그 "몇 방울"은 인침의 때의 시작을, 그 "풍성한 소나기"는 그 끝을 나타낸다. 인침의 때의 시작은 마지막에도 반복되며, 오순절 시기의 시작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던 것처럼 그 시기의 끝에는 말세의 백성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메마른 뼈들이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두 증인의 죽음에는 내슈빌과 2020년 7월 18일의 거짓 메시지를 라오디게아인들로서 선포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죽어 마른 뼈들의 부활은 죽음의 상태인 라오디게아에서 생명의 상태인 빌라델비아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그 부활과 전환을 일으키는 생기는 예언적 메시지다.

오직 율법주의적 신앙만 가진 얼어붙은 마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더 나은 것들,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보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겠는가! 마른 뼈들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Manuscript Releases, 제12권, 205쪽.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기간은 두 시기로 나뉘었는데, 첫째는 40일로, 그때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어 오순절을 앞둔 10일이 있었다. 40은 광야를 상징하며, 3일 반이나 1260년 또는 1260일도 마찬가지다.

2023년 7월에 미가엘이 강림하자,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 가운데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사역을 시작하심에 따라, 거리에서의 사흘 반 동안의 죽음이 끝났다. 그 사역은 오순절을 앞둔 열흘 동안으로 상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죄가 버려지고 형제들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열은 시험의 과정을 상징하며, 그 시험의 과정은 오순절에 끝났는데, 오순절은 일요일 법령을 상징한다.

여덟 페르시아 왕들과 유대인과 로마 사이의 동맹의 역사가 짐승의 형상의 시험 과정을 나타내는 바로 그 40절의 동일한 역사에서, 처녀들의 시험 과정은 오순절에 이르는 열흘 동안에 묘사된다. 그 역사에서 개신교주의와 공화주의의 배도한 뿔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반면, 참된 개신교의 뿔은 그들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결합하여, 두 부류의 예배자를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한다.

일곱 우레로 상징되는 역사적 사건들은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이 나타내는 역사 속에서 봉인이 풀리며, 40절의 숨겨진 역사와도 일치하는데, 그 역사는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즉 안식일 준수자들을 위한 은혜의 문이 닫히는 지점에서 결말을 맺는다.

“다시 말하여, 이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임을 가르친다.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면, 곧이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의 분리가 뒤따르며,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123.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라오디게아인들과 빌라델비아인들, 혹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은 천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밀을 함께 자라게 두라. 그때 분리하는 일을 하는 이는 천사들이다.” 선택된 메시지, 제2권, 69.

은혜의 시간이 닫히기 직전에 봉인이 해제된 그 기별은, 천사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밝혀 준다. 이 글들에 담긴 이 기별은 현재 전 세계에서 60여 개 언어(방언)로 출판되고 있다. 이는 지금 은혜의 시간이 닫히기 직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세 백성의 사명이다. 이 기별은 그 사건들이 일곱 천둥으로 표상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이 기별을 이해하고 전하는 일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경험을 낳는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밤의 환상 중에 내 앞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나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몇몇 아름다운 저택들 한가운데로 떨어져, 그로 인해 저택들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다른 이들은 괴로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방에서 비슷한 책망의 말들이 들려왔다.

나는 큰 괴로움 속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었고, 나는 큰 모임 가운데 있는 듯했다. 권위 있는 한 사람이 그 모임을 향해 말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지도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나타내며, 그것은 가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누구에게든 비추면, 그 사람은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야 했다. 많은 곳에서 등불이 켜져야 했고, 이 등불들로부터 또 다른 등불들이 켜져야 했다.

그 말씀이 반복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리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3-16.

나는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고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빛줄기들이 비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고, 그 결과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었다. 그분의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그런 다음 이 지도가 치워지고 다른 지도가 그 자리에 놓였다. 그 지도에서는 몇몇 곳에서만 빛이 비치고 있었다. 나머지 세계는 어둠 속에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겨우 희미한 빛만이 비칠 뿐이었다. 우리의 지도자가 말했다: '이 어둠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따라간 결과이다. 그들은 유전적이고 또 길러진 악의 성향을 품어 왔다. 그들은 의문 제기와 흠잡기와 비난을 자기 삶의 주된 일로 삼아 왔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그들은 자기 빛을 되 아래에 숨겨 두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시온 성벽 위의 모든 파수꾼이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냈더라면, 세상은 이미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일은 수년이나 뒤쳐졌다.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 사탄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움직였다." 증언, 제9권, 28, 29.